

# 출산 후 여성의 융합적인 성역할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수지<sup>1</sup>, 기채린<sup>2</sup>, 신기수<sup>3\*</sup>

<sup>1</sup>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sup>2</sup>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sup>3</sup>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Phenomenological Study about the Converging Experience of Women's Gender Role after Childbirth

Suzy Lee<sup>1</sup>, Chaerin Ki<sup>2</sup>, Gisoo Shin<sup>3\*</sup>

<sup>1</sup>Researcher, IACF, Chung-Ang University

<sup>2</sup>Graduate student, School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sup>3</sup>Professor,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출산 후 여성이 경험하는 성역할과 모성 역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이 경험한 의미에 초점을 둔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산 후 8주에서 1년 이내의 여성 17명이다. 참가자의 평균연령은 38.1세로 5명의 초산부와 12명의 경산부이었다. 참가자의 여성과 모성의 성역할에 대한 융합적인 경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 결과, 신체의 변화와 고통, 그저 힘이 들, 기대와 현실의 차이, 남편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모성이자 여성인 어머니를 생각함, 몸과 마음의 아픔이 승화됨, 여성과 모성의 융합과 해리의 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출산 후 여성의 성역할 경험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구성함으로써 출산 후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생애주기별 여성의 성역할 경험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여성의 다양한 성역할 규명이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융합, 모성, 성역할, 출산, 여성성, 현상학적 연구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using phenomenological methods that focus on the meaning of what individuals experienc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gender role of women after childbirth.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17 women who gave a birth from 8 weeks of the postpartum period to a year after the birth. Seven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meaning of the gender roles of participants, and the seven categories are confirmed to be body changes and pain, just making me feel down, the difference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isolation from husband and social network, thinking about my mother as a woman, the pain of body and mind sublimates, and convergence/dissociation between femininity and motherhoo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information that would have a broader understanding of women's gender role after giving birth.

**Key Words** : Convergence, Motherhood, Gender identity, Childbirth, Femininity, Phenomenological study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received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No.2017R1A2B4009560).

\*Corresponding Author: Gisoo Shin(gisoo@cau.ac.kr)

Received July 25,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Revised September 3, 2018

Published September 28,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은 임신의 긴 여정을 거치면서 임신 전에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된다. 임신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는 출산 후에 또 다른 변화로 연속선상에 놓이게 되며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성역할 정체성에서 모성으로서 새로운 역할 전환을 부여 받는다[1].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은 1960년대 자신의 성별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라는 의미로 사용[2] 되었으며 현재는 성적 지향, 즉 동성애나 양성애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3].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전자와 호르몬을 비롯한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사회·환경적 요인은 영유아가 성장,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 권위자 또는 대중매체 등의 영향력에 의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 성역할 정체성(gender role identity)은 실제의 생물학적 성 또는 개인이 인식한 성별에 기반 하여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절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련의 행동 및 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5] 사회·문화적 성역할은 보통 여성의 역할 또는 남성의 역할개념으로 보편화되어 일컬어지고 있다. Basow [6]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증거는 없으며 여성과 남성이 존재하는 차이점의 대부분은 성역할에 따른 결과로 성역할은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 집단,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 언론 및 종교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여성으로서 성역할은 수동적이고 감성적이며 남성에 비해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하여 좀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는 고정관념이 일반적이며[7], 이는 결혼 후 남성과는 다른 성역할로 여성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구속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즉, 남성은 결혼 후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감이 더 강화되어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역할이 주어진 반면에 여성은 주부로서 양육자로서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역할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8].

더욱이 여성의 성역할은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순리적으로 모성의 역할로 전환하게 되며, 임신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모성역할(motherhood, mothering)은 고전적으로 여성의 생

물학적인 생식능력과 연계되어 정의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전적인 모성역할뿐만 아니라 양육 전문가의 역할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198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아이와 가족 및 사회의 건강 돌봄자(caretaker)로서 의미가 확대되었다[9]. 모성역할 획득이론(maternal role attainment theory)에 따르면, 모성역할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그 역할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표현함으로써 내면적인 모성 정체성을 얻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임신과 함께 예측되는 단계, 출산에 따른 공식적인 단계, 여성의 과거 경험과 미래의 목표에 기초하여 역할을 만들어 가는 비공식적인 단계 및 역할을 분석하여 역할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개인적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10]. 이러한 모성역할 획득은 출산 후 여성의 생애주기에 있어 중요한 과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출산 후 모성역할과 출산 전 여성으로서 인식 하였던 성역할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접근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산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모성역할획득에 주로 초점이 이루어져 있으며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임신 전 인식하고 있었던 여성의 성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임신 전과 차이가 있는 출산 후 여성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특성이 모성으로 주어지는 성역할과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더불어 여성과 모성의 통합체로서의 여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출산 후 여성들의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경험을 기술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목적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증진으로 명상적인 사고를 기초로 행동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으로 임상 실무로부터 나오는 연구문제와 임상간호의 기능에 좀 더 적합하게 연구문제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내적 경험을 탐색하고 여성이자 모성으로 융합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그들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출산 후 여성을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을 경험한 산욕기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과 모성의 성역할에 대한 의미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의 질문은 “당신이 출산 후 여성으로서 경험한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성 역할은 무엇인가?” 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출산 후 여성의 여성과 모성의 성역할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이 경험하는 그대로의 의미에 중점을 두는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산 과정을 거친 후 산욕기 8주 이후부터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17명이다.

### 2.3 연구자 준비도

본 연구자들은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를 수행한 자들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대상자, 우울증 산부와 고위험 임신부의 상담경험을 비롯하여 10년 내외의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에 대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반추해 보았으며 개방적이고 비구조적인 질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토의를 하였다.

### 2.4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참여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이 전혀 없으나, 연구 참여자가 출산을 경험한 여성임에 따라 대상자의 인권 보장에 초점을 두었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나누어 주어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만을 연구 참여자에 포함시켰다.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노출하지 않도록 익명으로 한다는 점과 대상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알렸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해 있는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1041078-201705-HRSB-

097-01).

### 2.5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였다. 면담에서는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음을 하였으며 녹음은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참여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회수는 참여자별로 1회 또는 2회 이었으며 2차면담의 경우 1차 면담내용이 확실하지 않았거나 불일치했던 내용을 질문해야하는 경우에만 수행하였다. 면담시간은 1인당 1회 평균 100분이었으며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녹음자료는 바로 필사하였다.

### 2.6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대상자의 면담내용에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 현상을 정확하게 진술하려는 Colaizzi 분석방법[12]이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여 이를 토대로 본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Linclon & Guba [13]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고려하면서 연구의 질을 관리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 시 체스처 등을 필사와 함께 기록함으로써 생생하고 충실하게 사실적 가치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적용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출산 후 여성 3인에게 분석 결과를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분석 결과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이 분석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논의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8.1세 이었으며 초산부 5명, 경산부 12명으로 마지막 출산 월은 평균 8.1개월이었다. 또한 정상두위분만 경험자가 11명, 제왕절개 분만 경험자는 7명이었다.

### 3.2 연구결과의 범주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여성과 모성의 성역할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변화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54개의 주제, 20개의 주제모음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토

대로 7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Table 1

Table 1. Themes, Theme clusters and Categories that Emerged from the Data.

Categories	Theme clusters	Themes
Body changes and pain	Physical discomfort	There is no place where my whole body is sick. I have had urinary incontinence that I never had before. I take pills due to back and pelvic pains, etc.
	Change in naming	Body shape is changing. I accept a married woman/a woman. I do not want to see the mirror.
	Lack of knowledge	Nobody teaches about changes after childbirth After childbirth, I thought everything would be done by itself.
Making me feel just down	Every day you meet things for the first time	Everything is embarrassing. My heart hurts without reason. It tears and it is hard.
	Stigma	I have a name as a mom. Restricted to eating habits and behavior. I feel alienated.
Difference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Cannot take care of my body	Husband and family take the baby first. I could not take a second for a rest. Repeat everyday life.
	Unexpected situation	I thought the baby would be pretty. I thought I would be a perfect mother. I thought my hubby would help me actively.
	Unable to select	Give up my job. Forced to play the role of a mother. Life style and environment change.
Isolation from husband and social network	Feeling isolated	There is more time to be alone with the baby. I feel disconnected from the world. The topic of conversation with husband became uniform as a baby.
	Anxiety about husband	The desire for sex is falling. Physiological changes such as secretion decrease. It seems to have lost charm as a woman,
	Be more independent from husband	My husband is usually outside. Things occur that my husband cannot solve immediately.

Thinking about my mother as a woman	Feeling sorry and thankful	Reflect myself before giving birth. My mother looks great.
	Sticky comradeship	My mom and I are getting closer. I chitchat with my mother, which I didn't get used to. I become considerate for my mother.
	Understanding mom	I feel my mother was a woman too. I understand the conflict between mom and dad. I accept my mother's nagging.
Pain of body and mind sublimates	Confronting turning point	Forget the pain of childbirth. I feel the impression of breastfeeding. Become a true mother.
	Identify me with he baby	The baby is namely myself. Change me for the baby.
	Feel absolute responsibility	Become the absolute protector of the baby. I feel the instinct of maternity.
Convergence /dissociation between femininity and motherhood	Euphoria that was not felt before	There is someone in my side. Any story can be done. I get strength from my baby.
	Changes in external and internal women's image	Abandon appearance of female image. The perception of women that I knew changed.
	The distinction between women and maternity	Woman and a mother role are different. Women are weak and mothers are strong. Plan the future as a mother, not as a woman.

### 범주 1. 신체의 변화와 고통

참여자들은 출산 후 경험한 요실금, 치질, 요통, 손목 통증 등 신체적 불편감과 통증이 심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임신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체형으로 결혼 이후 여성에게 붙여지는 아주머니 또는 유부녀의 호칭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일게 되었다. 그러나 출산 후 겪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임신 전에 그 어떤 정보제공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 출산 이후 변화는 저절로 되돌아가는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요실금 때문에 생리대를 큰 거, 밤에 하는 대항을 차고 다녔어요 너무 내가 짐승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거예요 왜 강아지 패드하는 것처럼... 이게 생리도 아니고, 몸이 확 가는구나, 몸이 확 가벼웠구나... 여자는 확실히 아이를 낳고 나면은 몸이 나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둘째를 낳고 요실금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당황하였던 것이 줄넘기하러 갔는데 소변이 나왔던 거예요. 아직도 좀 피곤하고 그러면 조절이 안되고 그래요. 왜냐면 출산할 때, 힘을 줄 때 진짜 죽을 듯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회음부) 근육이 완전 풀려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임신부터 나온 배가 애기 낳고도 들어가지 않고, 체중 부하가 되면서 앉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불편해요. 임신 전에 입었던 옷은 하나도 입을 수도 없죠. 내 모습이 정말 아줌마구나..

아기 낳고 3, 4개월 지났는데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것이어요. 마치 암환자처럼.. 얼마나 놀랐는지..(중략) 인터넷도 육아 책도 임신 때 생기는 일과 아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아기 낳고 나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라는 없잖아요. 당연히 저절로 임신 전으로 돌아가는 줄만 알았지요.

#### 범주 2. 그저 힘이 듭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참여자들 모두는 출산 후의 변화에 대하여 매번 처음 만나는 상황으로 느껴져 당황스러웠으며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여성'이라는 인식보다는 '엄마'로서의 새로운 낙인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낙인은 임신 전에 거리낌 없이 하였던 일상의 행동과 식습관에 제약을 가져왔으며 때때로 가족들 또는 지인들 그룹으로부터 소외되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첫 애와 달리 모유수유가 너무 힘들고 당황스러운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쉬운 것 같은데.. '나는 왜 이것 못할까?' 너무 우울했어요.

첫애 때 신랑이 전화를 자주 하는 것이어요. 왜 안하던 사람이 전화를 자주 할까하고 지나갔는데 둘째 낳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산후 우울증으로 4층 집에서 뛰어내릴까봐.. 내가 울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니까..

언젠가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여자가 애를 낳으면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커다란 도장을 찍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요. 출산하고 나니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정말

실감이 났어요.

결혼 전부터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모처럼 참석하니까 모두들 첫마디가 애는 어떻게 하고 왔냐고..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 범주 3. 기대와 현실의 차이

참여자들은 출산 후 육아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몸보다는 아기를 돌보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초산부일수록 육아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에 실망 또한 큰 것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육아로 인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임신 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방식 또는 환경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육아 휴직 동안 밥 먹고 애기 젖먹이고 청소하고, 기저귀 갈고 젖먹이고 청소하고 기저귀 갈고 젖먹이고 밥 먹고, 기저귀 갈고 젖먹이고 청소하고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되니까.. 육아휴직동안 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기 키우다 보면 물일을 계속 하니깐 간지럽다 못해. 손바닥이 피가 날 정도로 다 갈라진다고 해야 하와. 첫째 때는 정말 심했던 게 손가락 마디마디를 다 대일밴드를 붙였어요. 왜냐면 애기 것은 다 손빨래 하다보면..(중략) 이게 재생이 안되네요. 병원에서는 그냥 공주처럼 살라고 하는데..

왜 반려견도 이상과 현실 차이가 있다는 것 유머 사진 많이 올라오잖아요. 내 애도 똑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애를 보는 것이 힘들니까..(중략) 이게 시작인가? 이러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저의 경우는 저녁에 장사를 하는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친정에서 거의 생활을 해요. 저녁에 애기를 맡길 때가 없으니까.. 신랑이 삼일이나 일주일에 한번 와요. 친정으로 저는 거의 친정에 있고.. 애기 낳고 나서 환경 자체가 바뀌었지요.

#### 범주 4. 남편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임신 전 주로 남편과 일상을 함께 했던 참여자들은 출산 이후 남편으로부터 또는 사회로부터 고립감을 많이

느끼었으며 출산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육아에 따른 피로로 인하여 성적 관계의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때때로 남편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 시켰으며 한편으로는 임신 전 남편에게 의지했던 일상의 일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자는 것은 자는 것이지만 거의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하니 낮에 내내 몽롱한데 어찌되었든 애 이유식도 만들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중략) 남편은 뭐 내 마음 알아주냐? 남편도 회사일 바쁘니까 따로 놀고.. 애기랑 둘이만 있으니까 세상과 단절되고

부부관계를 안하게 됐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부위가 터질까봐 불안감도 있고. 성욕이 떨어졌었어요. 남편이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 '이거 아이 밥인데.' 그런 생각도 들고.. 질 분비물도 줄고..

여자는 회복이 안 되어 있고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성적으로) 그냥 받아 주게되요. 남자는 애기를 낳든 안 낳든 성욕은 똑같으니까 자기가 낳은 것이 아니니까..(중략)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릴까봐 불안한 마음도 들고..

첫째 애 낳고는 몸이 가뿐했었는데 둘째 낳고나서 자다가 허리가 빠끗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예요.그리고는 목이 안 돌아가는데.애는 배고파서 울고 남편은 없고.. 남편이 왜 남의 편인지 이해가 되었죠

#### 범주 5. 모성이자 여성인 어머니를 생각함

보편적으로 출산 후 여성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출산의 경험을 통해 모성이자 여성으로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자는 애 낳고 나면 철 든다 하잖아요. 폭풍 진통을 16시간 하고 죽을 듯 살 듯 해서 흡입기로 애를 뺐는데 그때는 정신없어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조리원에 찾아온 엄마를 보니까 눈물이 왈칵 났어요.엄마한테 못되게 한 것이 다 생각나고 어찌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저희 엄마는 치질이 심해서요. 근데 저도 애 낳고 나서

변을 볼 때 한 번씩 피가 나거나 오래 서있으면 치질이 나올 때가 있어요.저년에는 제주도 가느라 비행기 타고 앉아 있으니까 또 나오요.엄마도 나와 같구나. 요즘은 엄마한테 먼저 도넛 방식도 드리고 엄마를 배려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엄마이지 엄마가 여성이나 여자다 그런 생각은 굳이 하지는 않잖아요.그냥 남들이 엄마도 여자야 그런 말하면 그걸 굳이 왜...(중략) 둘째 낳고나서야 엄마 리즈 때 사진을 처음 꺼내봤어요! 엄마도 여자였구나..

#### 범주 6. 몸과 마음의 아픔이 승화된

모유수유의 경험과 아기와의 눈 맞힘 등 아기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면서 참가자들은 출산에 따른 신체적 변화와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아기와 자신을 동일시 하였으며 아기에 대한 강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모성으로서 역할을 자부하였다.

태반이 잘 안 빠져서 출혈이 심해서 고생했었는데 아기 젖 물리고 눈 맞히고 하니깐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셋째도 낳을 수 있는 것이구나.

태아 때부터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내 몸 상태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애한테 하는 게 틀려지는 것이예요.그래서 애는 엄마가 행복할 때 가져야 된다고.당연히 애 키울 때도 엄마가 행복해야지만.

이 애는 저 때문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온 것이잖아요.애기한테는 제가 생명줄인거죠.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제 자식 위해 희생하는 건 당연한 것이잖아요.모성이니까..

#### 범주 7. 여성과 모성의 융합과 해리

참여자들은 출산 전과는 전혀 다른 신체적, 심리적 및 환경적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모성으로서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여성스럽다', 또는 '가는 허리의 긴머리 여성' 등 출산 전에 여성성으로 추구하고자 하였던 외모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동시에 모성으로서의 내적 여성성에 대한 융합과정도가

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성성으로서 여성과 모성을 하나로 인식하지 않고 임신 전 여성과 출산 후 모성으로 분리하려고 하였다.

백일 때 애가 제 목을 딱 감더라고요 내 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진짜 사랑해줄 수 있는.(중략) 아직 애기인데도 든든해요.

애기를 낳고 나면 정말 새로운 감정이 생겨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껏 마음을 쏟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이제 몸무게는 빠져도 골격이 바뀌잖아요. 내가 불과 얼마 전에 저렇게 잘록한 허리를 가졌었는데 운동을 해도 사실 그 몸매가 안 돌아오더라고요.(중략) 육아하면서 피부 관리 할 수도 없고 머리도 맘대로 기를 수도 없고 냉장고 바지처럼 옷도 편한 것이 최고고요 낳고 나면 이래서 폭삭 늙는구나 그래도 엄마가 되는건 하늘이 준 선물이니깐.

전에는 여러 여러하고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애 둘을 한꺼번에 업고 안아야하니까 팔도 굵어지고 힘도 세지고.(중략) 유모차 들고 지하철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남편 앞에서는 어린 척 해야 하지만.. 엄마와 여자는 분명 달라요.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출산 후 여성들의 여성과 모성의 역할 경험에 대한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출산 후 여성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출산 후 여성이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변화는 개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기 보다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세 축이 긴밀하게 연관된 경험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여성은 피로, 유방과 회음부 불편감, 배변장애, 요실금 등의 신체적 불편감과 함께 산후 우울감을 경험 하지만[14] 이에 대한 회복의 시간을 갖기도 전에 모성으로서의 역할을 획득해야하는 책임감이 주어진다 [10].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임신 전에 경험하지 못

했던 신체적 변화와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아주머니'로서의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주머니에 대한 호칭은 젊음과 미모의 대명사인 미혼 여성들과 구별하여 주로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리어졌으며, 사회적으로 가정주부들,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 식당 아주머니, 가정부 아주머니 등 그 역할과 사회 구성원들의 공유된 표상 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인식되어졌다[15]. 이러한 인식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아주머니의 용어 사용에 대한 양상을 조사한 선행연구[16]에 따르면, 아주머니의 호칭은 전문적이지 않은 직업에 주로 사용되며, '무식스러운', '극성스러운', '수다스러운', '마음 좋게 생긴' 등 외모의 특성 또는 성향과 관련이 있는 어휘소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젊음의 속성이 아닌 출산 경험을 한 여성과 동일시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밀감이나 긍정의 속성보다는 부정적인 속성이 더 강하였다. 우리나라처럼 서양의 경우도 유사한 연구결과 [17]가 제시되고 있는데 영어표현에서 'Miss'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친절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Mrs'는 'Mistress'에서 유래되어 결혼한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며 때로는 여성의 사회적 상황을 경멸하거나 또는 여성의 성적인 역할(sexual behavior)을 묘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여성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도 '아주머니' 호칭에 따른 성역할은 고정관념에 묶여 있었으며,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대중매체 속의 여성의 성역할인데[18],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결혼과 출산에 따른 여성의 변화를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충실해야 하는 여성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적 또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여성으로 부각 시키고 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결과[16-18]에서도 제시되고 있는데 출산 후 여성은 사회에서의 다양한 역할보다는 가정 내 모성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모성으로서의 성 역할에 따른 변화는 본 연구 참여자들에서도 표출 되었는데 참여자들은 남편과 사회관계 속에서 고립감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출산 후 직장을 포기하거나 임신 전 구축되었던 환경의 변화로 그 결과가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관계에서 임신 전과는 다른 대화 또는 역할을 부여받음으로 소외감을 느끼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출산 전 가족환경에서 중심의

축을 이루었던 부부관계가 두드러지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과의 성적, 심리적 친밀감이 출산 후 변하였다고 하였으며 일상의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 남편에게 의존적이던 역할이 독립적인 역할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출산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LeMasters [1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결혼 후 첫 아이를 돌보는 부부의 83%가 부부관계의 심각한 위기를 겪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출산과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처럼, 출산 후에는 결혼에 대한 만족과 결혼 생활의 질이 낮아진다는 부정적인 견해의 연구결과가[20] 제시되고 있는 반면에 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부부관계의 유대감이 개선되고 성적인 면에서도 친밀도가 증가하여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도[21]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출산의 영향이 부부관계에 있어 부정적 또는 긍정적으로 작용함에 있어 중요하게 제언되고 있는 것은 출산 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심리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남편의 부정적인 행동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성역할뿐만 아니라 모성역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 후 여성에게 있어 남편 또는 가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2].

이러한 이유는 남녀가 생물학적인 성별에 따라 결혼 전부터 이미 다른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회구조 이론[23]에 근거한다. 사회구조 이론[24]에 따르면 개인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에 사회문화적 압력이 가해짐으로 남녀가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가지게 되며 이어 그 역할에 부합하도록 출산 후 행동이 유도된다는 것이다. 즉,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게 되며 이는 그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성이라는 사회문화적 기대가 결합되어 출산 후 남성과는 다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참여자들이 출산 경험을 통해 단순히 여성의 성역할만이 아닌 모성으로서의 역할융합이 일어나는 것은 사회구조 이론에 근거한 순차적인 과정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출산 경험을 통해 모성의 역할로만 인식하였던 어머니를 모성이자 여성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모성역할에

대한 연구는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교육 등과 같은 가족의 주요 행위 주체로서 재현되어 왔다. 한국 여성들의 모성인식에 대한 세대 비교 연구와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연구결과에[25] 의하면, 출생한 세대의 국가와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여성에 대한 관점과 모성역할에 대한 정체성과 규범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사회에서는 출산 후 여성에게는 희생과 완벽함의 모성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령 ‘아이가 아파서 집에 가면 일에 열정이 없다가거나 개인의 행복만 추구한다 하고 일하느라고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면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가족을 뺑개치나는 편지를 받는 것’이다[26]. 모성의 역할은 단일하고 고정된 생물학적 속성이 아니며 여성이 지닌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정체감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27].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 참여자들이 출산 후 어머니를 모성의 역할에서 참여자들과 동일한 여성으로 생각을 확장하게 된 것은 출산이 여성과 모성의 역할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긍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 고정되어 있는 모성의 차별적인 성 역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출산의 경험이 매개체가 아닌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의 출산 후 모성역할 전환과정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육아의 경험이 출산의 고통을 잊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표현 하였으며 아기와 자신을 동일시 하면서 책임감을 표출 하였다. 긍정적인 모성역할 획득의 주요 요소는 아기에 대한 동일시, 상호작용, 소유주장 등 아기에 대한 애착과 모아 상호작용을 통한 만족, 기쁨 등을 얻는 것으로[1,28] 본 연구 참여자들의 여성과 모성의 융합과정이 긍정적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본 연구 참여자들은 임신 전 인식하였던 여성의 성 역할과 모성의 성역할을 해리시켜, 여성과 모성에 대한 정체성을 구별하고자 하였다. 모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호르몬의 생리적 변화와 여성이 속해 있는 사회 환경적 문화 그리고 아기를 양육하는 경험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성의 성역할이자 여성과 분리될 수 없는 전체 인격의 일부 분이다[29]. 또한 여성과 모성의 정체감과 성역할 획득은 삶의 과정과 생활 주기에서 계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경험에 따른 내적 자본이자 과거와 현재의 자기 자신을 동일시 할 줄 아는 감각이다[27]. 그러므로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맞이하게 되는 변화에 따라 여성과 모성이



분리되어 질 수 없는데, 본 연구 참여자들의 여성과 모성의 해리는 출산 후 여성의 공간을 가정으로 제한하거나 희생적인 모성의 역할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사회적 관념에 의한 것으로[30]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여성과 모성의 성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여성이자 모성으로서의 다양한 성역할에 대한 융합적인 탐색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출산 후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과 모성의 성역할에 대한 내적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탐색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54개의 주제와 20개의 주제모음에 따라 신체의 변화와 고통, 그저 힘이 들, 기대와 현실의 차이, 남편과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모성이자 여성인 어머니를 생각함, 몸과 마음의 아픔이 승화됨 그리고 여성과 모성의 융합과 차이의 7개의 범주가 구성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 출산 후 여성은 임신 전과는 전혀 다른 신체적, 심리적, 사회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여성의 역할에서 모성으로의 역할로 융합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임신 전 인식하고 있었던 여성의 성역할과 출산 후 과업으로 주어진 모성의 성역할을 분리함으로써 여성성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출산 후 여성과 모성의 성역할 경험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구조화함으로써 출산 후 여성의 문제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실무측면에서는 출산 후 여성을 모성으로만 인식하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는 중재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며, 연구측면에서는 향후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측면에서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출산 후 여성들이 다양한 성역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S. A. Orshan. (2008). *Maternity, newborn, and women's health nursing: comprehensive care across the lifespan*. Philadelphia US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1041-1192
- [2] L. Messinger & D. F. Morrow. (2006). *Case studies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expression in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85-90.
- [3] N. R. Carlson & C. D. Heth. (2009). *Psychology: the science of behaviour* (4th ed.), Toronto Canada: Pearson:1-720.
- [4] H. P. Halpern. (2015). Parents, gender ideology and gendered behavior as predictors of children's gender-role attitudes: A longitudinal exploration. *Sex Roles*. 74, 527.  
DOI:10.1007/s11199-015-0539-0
- [5] J. Money & P. Tucker. (1975). *Sexual signatures: On being a man or a woman*. Boston USA: Little:742-744.
- [6] S. A. Basow. (1992). *Gender: Stereotypes and roles*. Belmont USA: Thomson Brooks/Cole Publishing Co:1-447.
- [7] S. T. Fiske, A. J. C. Cuddy, P. S. Glick & J. Xu, (2002). J.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890
- [8] M. Bertrand, E. Kamenica & J. Pan. (2015). Gender identity and relative income within household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0, (2), 571-614.  
DOI:10.1093/qje/qjv001
- [9] E. N. Glenn, G. Chang G & I. R. Forcey. (2016). *Mothering: Ideology, experience, and agency*. New York. London: Routledge:95-210.
- [10] R. T. Mercer. (1995). *Becoming a mother: Research on maternal identity from Rubin to the present*. New York USS: Springer Publishing Compan:1-388.
- [11] T. Mapp. (2008). Understanding phenomenology: the lived experience. *British Journal of Midwifery*. 16, (5), 308-311.
- [12] P. F. Colaizzi.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onald S. Valle & mark King (eds.), *Experiment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1-6.
- [13] E. G. Guba & Y. S. Lincoln.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 163-194.
- [14] J. W. Yang & I. S. Jung. (2018). Convergence effect of spouse's support on postpartum depression and self-efficacy in primipara.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9, (1), 171-180.

- DOI:10.15207/JKCS.2018.9.1.171
- [15] S. C. Choi, J. Y. Kim & K. B. Kim. (2001). Analysis of "Adjumma" as a psychological construct in Korean cultur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20, (2), 327-347.
- [16] K. S. Kim. (2018). The aspect of extension and use of kinship terms of address-in the center of uncle, aunt.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43, (1), 1-20.  
DOI:10.18855/lisoko.2018.43.1.001
- [17] A. L. Erickson. (2014). Mistresses and marriage: or, a short history of the Mrs. In *History Workshop Journal*. 78, (1), 39-57.  
DOI:10.1093/hwj/dbt002
- [18] S. Y. Son. (2014). A research on female role image from a female perspective-focusing on TV commercial cases. *Journal of Korea Society of Visual Design Forum*. 44, 231-241.
- [19] E. E. LeMasters. (1957). Parenthood as crisis. *Marriage and family living*. 19, (4), 352-355.
- [20] B. D. Doss & G. K. Rhoades. (2017).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mpact on couples' romantic relationship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13, 25-28.  
DOI:10.1016/j.copsyc.2016.04.003
- [21] M. Myrskylä & R. Margolis. (2014). Happiness: Before and after the kids. *Demography*. 51, (5), 1843-1866.  
DOI:10.1007/s 1 3524-014-032 1-x
- [22] E. S. Kluwer. (2010). From partnership to parenthood: A review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2, (2), 105-125.
- [23] J. E. Stets & P. J. Burke. (2000). Identity theory and social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3, (3), 224-237  
DOI:10.2307/2695870
- [24] D. H. J. Morgan. (2014). *Social theory and the Family* (RLE Social Theory). Routledge.
- [25] S. H. Lee. (2011). Korean women's conceptualization of motherhood: A comparative analysis through oral life histories. *Issues in Feminism* 4, 59-99.
- [26] H. H. Jung. (2011). Women of Korean society. *Feminism Theory*. 25, 233-240.
- [27] G. W. Bonham. (2017). *Women, wives, mothers: Values and options*. New York. London: Routledge:17-30.
- [28] J. Y. Lee & H. Y. Kim. (2018). Development of mobile appication on breastfeeding convergence education program for high risk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9, (1), 357-364.  
DOI:10.15207/JKCS.2018.9.6.357
- [29] J. E. Crowley. (2014). Staying at home or working for

pay? Attachment to modern mothering identities. *Sociological Spectrum*. 34, (2), 114-135.

DOI:10.1080/02732173.2014.878605

- [30] C. B. Kim & K. S. Kim. (2017). The of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of mothers of children with atopic dermatitis: Focus on the experience of family management style.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9, (1), 257-271.  
DOI:10.15207/JKCS.2017.8.10.257

이 수 지(Lee, Suzy)

[정회원]



- 2006년 2월: 연세대학교 간호학사
- 2015년 8월: 중앙대학교 석사
- 2005년 10월 ~ 2008년 6월 :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간호사
- 2016년 5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 관심분야 : 성인여성건강, 재난대처
- E-Mail : child224@cau.ac.kr

기 채 린(Ki, Chaerin)

[정회원]



- 2015년 2월: 경희대학교 간호학사
- 2017년 9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 석사과정
- 2011년 3월 ~ 2014년 5월 : 순천향대학병원 간호사
- 2014년 10월 ~ 현재 : 마드레 산 후조리원 관리자

- 관심분야 : 여성건강, 모유수유, 산후 건강
- E-Mail : chaerinki@gmail.com

신 기 수(Shin, Gisoo)

[정회원]



- 1995년 8월: 연세대학교 석사
- 2002년 2월: 고려대학교 박사
- 2004년 1월 ~ 2005년 2월 :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 객원 교수
- 2009년 11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생리적 특성, 가상현실
- E-Mail : gisoo@cau.ac.kr